

1.

```
cq = read.csv("C:/RLanguage/cquiz1.csv")
summary(cq)
a=table(cq$score)
barplot(a,border="pink",col="pink",main="19학번 C언어 점수",xlab="점수",ylab="명")
```

2.

술집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가 저희 팀의 관심 통계입니다. 먼저 술집은 범주형 데이터고, 만족도는 연속형 데이터이므로, T검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엑셀에서 가상데이터를 정리한 후,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csv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파일을 R언어로 불러와 T검정으로 p-value = 0.001437임을 구하고, 술집들 사이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s.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술집이란 유흥을 즐기기 위한 장소로만 생각했는데 R언어와 접목 시켜 통계를 하게 되면서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으며,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번 과제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벡터화 시키는 데에 아래의 방식처럼 값을 하나하나 입력하였고 25개의 값밖에 없어 힘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 상의하면서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값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민 하던 중, cq라는 변수에 저장한 csv파일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서 score의 행에 있는 값들만 뽑아낸 벡터값을 cq\$score로 불러들일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다시 table()을 써서 barplot()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었습니다.

\*

```
a=table(c(100,100,100,100,100,90,89,89,89,89,89,89,89,89,89,89,89,89,85,85,80,79,66,56,48,43))
```